**▶ 장혜진-다비치, ‘미모, 실력, 인성 너무 예뻐!’ 깨알 후배 사랑 과시**

**▶ 장혜진-다비치, 하얀 의상으로 세대를 뛰어넘은 미모대결, ‘훈훈한 선후배’ 인증**

 신곡 ‘오래된 사진(아름다운 날들 Part2) feat. 딥플로우’로 5년여만에 신곡을 발표하고 가수로서의 활동에 기지개를 켠 장혜진이 SNS를 통해 여성보컬그룹 다비치와의 훈훈한 선후배 인맥을 과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장혜진과 다비치가 하얀 계열의 의상을 입고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장혜진은 SNS를 통해 “다비치는 미모와 실력, 인성이 너무 예쁜 후배”라며 극찬하며, 싸인 CD를 선물로 준 다비치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다비치를 ‘국내 최정상의 여성 보컬 듀오’로 칭하며, 신곡 ‘또 운다 또’ 적극 홍보하는 등 후배에 대한 애정을 아끼지 않아 돈독한 선후배의 모습을 보여주어 주변을 감동케 했다.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대를 뛰어넘은 미모대결’, ‘장혜진, 다비치 훈훈한 선후배 사이 보기 좋아요’, ‘세분이서 함께하는 무대 보고싶어요’라며 장혜진과 다비치에 대한 호평을 이어갔다.

 한편 장혜진은 발라드가 아닌 새로운 장르인 블랙 뮤직에 도전하며 싱글 ‘오래된 사진’으로 가요팬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비치 역시 미니앨범 ‘DAVICHI HUG’를 발표 후 타이틀 곡 ‘또 운다 또’로 음원차트에서 1위를 굳건하게 지키며 여신 듀오 ‘다비치’의 귀환을 알렸다.